



“자연재해 농민 희망찾는 과정 후속 보도를”

한라일보 독자권익위의 회의 “환경사범 원상 복구에 관심 불법체류 증가 근본 원인과 민간위탁 문제도 분석 필요”

자연재해로 상처받은 농업인들이 다시 희망을 찾는 과정도 후속 보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0일 한라일보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한라일보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문성숙) 10월 정례 회의(위원장 문성숙) 10월 정례 회의를 통해서다.

이날 이선화 위원은 “올해는 유독 기상이변이 많았고 특히 제주 동부 지역 농업인 피해가 심했다”며 “농업인들이 자구책이든, 주변의 도움을 받든 다시 일어서는 모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안했다.

고광인 위원은 “한라일보하면 환경이 먼저 떠오르고 환경 관련 기사를 잘 다루고 있는데 환경 사범을 적발했다는 기사만이 아니라 향후 어떻게 원상 복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일마전 훼손 사범을 구속했던 대상을 가봤더니 복구가 이루어졌는데 사후 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형 위원은 바둑 코너 부활을 희망했다. 김 위원은 “과거 한라일보에서도 지면을 할애해 두뇌 스포츠로 불리는 바둑을 게재했던 기억이 난다”며 “제주 바둑은 최근 아마추어와 프로가 활성화되며 전국 상위권 수상이 이어지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바둑 코



30일 한라일보 대회의실에서 2019 한라일보 독자권익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상국기자

너 부활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만석 위원은 30일자에 보도된 ‘제주관광지 순환버스 발진방안 토론회’를 들며 “고작 5명이라는 관광지 순환버스에 예산 수십억이 낭비된다는 기사였는데 내년 예산안 검토에 앞서 올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은 또한 이날 인터넷 한라일보에 게재된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등에 대한 민간 위탁 중단 요구 기사를 언급하며 “제주도에 각종 센터가 많은데 민간 위탁과 직영에 대한 비교 분석과 더불어 제주도에서 자주 민간위탁을 시행하려 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오명찬 위원은 “도내 불법체류자가 10년 전 1000명에서 지금은 1만5000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불법고용, 외국인 범죄와 연결되고

있다”며 “외국인을 고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고용의 길은 최대한 열어주고 불법은 강력 처벌해야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이와관련 근본적인 원인과 처방에 대한 심층 보도가 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인숙 위원은 “입시철인 11월은 중·고교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학생들에게 긍정적이고 힘찬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취재 보도가 나오길 희망한다”고 했다. 신승훈 위원은 “서귀포시 문화도시 추진 관련 기사를 한라일보에서 꾸준히 다뤄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12월 지정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도 더 많은 관심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이정연 위원은 “중·중신문을 일일이 읽기 어려운 독자들을 위해 농치지 말아야 할 제주 이슈 등을 모바일 SNS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새마을금고 제주봉사단 집수리 봉사



MG새마을금고 제주봉사단(봉사단장 홍성호)은 30일 제주시 삼도이동 및 월평동에서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제주대 위셋사업단 이공계 여학생 장학금



제주대학교 위셋사업단(단장 김소미 바이오소재전공 교수)은 지난 28일 양나현씨 등 4명에게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2019년 2학기 위셋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림읍장애인지원협 재가장애인 나들이



한림읍장애인지원협의회(회장 함동운)는 지난 28일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림읍 재가장애인 및 가족 100여명과 함께 재가장애인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서귀중앙여중 ‘사과의 날’ 운영



서귀중앙여자중학교(교장 강창호)는 지난 25일 ‘내 마음의 행복지수 사과 day’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표현하지 못했던 그동안의 미안한 마음을 사과하기 위해 진행된 행사로 손수 쓴 편지를 건네며 함께 사과를 나눠 먹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등정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김덕홍 조천읍장 지난 30일 지역내 순찰을 하면서 주요 도로변 및 버스승차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직원들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거리 환경 조성에 만전을 주문.



도신지식인연합회 신지식인인증서 수여 제6회 신지식인 시상식 개최

(사)한국신지식인회 제주도신지식인연합회(회장 김석신)는 지난 25일 아스타호텔에서 열린 제6회 신지식인인증서 수여식에서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상자는 제주를 사랑하는 인사를 포함,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소기업, 자영업, 교육분야 신지식인 8명이다. 다음은 분야별 수상자 명단.

- ▶중소기업분야 ▷최우수신지식인상 박명순 제주풍나물영농조합법인대표 ▷우수신지식인상 문희영 (주)서문기업이사 ▷교육분야 ▷대상 고은상 제주한방생명자연연구소원장 ▷최우수신지식인상 성수나 다문화가족상담센터대표 ▷우수신지식인상 고은실 부천자연치유연구소대표 ▷자영업분야 ▷최우수신지식인상 오명순 오세영 뷰티코퍼레이션대표 ▷우수신지식인상 박지애 규미지대표 ▷우수신지식인상 서원화 우진 꽃 판매장대표 등 8명.

오리온재단 사회복지시설 2곳에 차량



오리온재단(이사장 이재경)은 지난 25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를 통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에 5000만원 상당의 차량 2대를 지원했다. 이번에 전달된 차량은 동부종합사회복지관과 동제주노인복지센터에 전달됐다.

알림

출산장려 캠페인

아기의 탄생, 세상의 행복

한라일보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출산축하 코너’를 신선했습니다.

제주에 거주하면서 12개월 미만의 아기를 둔 부모나 조부모는 아기(가족)사진과 소정 양식에 내용을 적어 보내 주시면 누구나 게재 가능합니다.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세상의 행복을 가져다 줄 출산기정 모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라일보 홈페이지 출산캠페인 배너에서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baby@ihalla.com)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편집부 ☎750-2251)

이메일 접수가 힘든 분을 위해 전화 접수도 받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여행업등록 제234호

모두투어 전문판매대리점(가자항공여행사) T. 747-0404, 744-6068

공통사항 - 양복항공권(전일정호출(2인1실),관광지입장료,일정 식사포함,최소 10명 출발가능,인솔자동행(부분별),유류할증료포함,1억원 여행자보험, 불포함 - 비자대(부분별),기사/가이드경비(부분별),현지선택관광

고객센터: 064-707-0404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 064-707-0404 (제주특별자치도) | 서울: 02-707-0404 (서울특별시) | 부산: 051-707-0404 (부산광역시) | 대구: 053-707-0404 (대구광역시) | 인천: 032-707-0404 (인천광역시) | 광주: 061-707-0404 (광주광역시) | 대전: 042-707-0404 (대전광역시) | 울산: 052-707-0404 (울산광역시) | 세종: 031-707-0404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 033-707-0404 (강원도) | 충청: 042-707-0404 (충청남도) | 전북: 063-707-0404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 061-707-0404 (전남특별자치도) | 경북: 053-707-0404 (경북특별자치도) | 경남: 055-707-0404 (경남특별자치도) | 제주: 064-707-0404 (제주특별자치도)